

## 대학생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분노경험 및 분노사고

정 현 미                  황 순 택<sup>†</sup>                  이 숙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에서의 분노사고, 특성 분노, 분노생활사건을 비교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집성 척도, 한국판 Zung 우울척도,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상태-특성 분노척도, 그리고 분노생활사건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총 5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편집과 우울은 분노사고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및 무력감, 분노생활사건과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편집은 타인비난/보복과, 우울은 무력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두 증상 각각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우울에 비해 편집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증상에 대해 무력감, 특성분노, 분노생활사건이 공히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편집은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 우울은 낮은 분노통제/건설적 대처가 추가적인 예언변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해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분노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타인비난/보복, 특성분노 수준이 더 높았으며, 분노생활사건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편집, 우울, 분노사고, 특성 분노

---

\* 본 연구는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7).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Tel : 043) 261-2187 / E-mail : hstpsy@chungbuk.ac.kr

편집과 우울은 여러 정신장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중 하나이며,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에서 심하면 임상장애에까지 이르는 연속적인 현상이다. 편집과 우울은 각기 독특한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밀접한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많은 우울 환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편집적 사고에서부터 견고하고 고정되어 있는 망상적인 편집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편집관념을 보인다(Jordan, Peter, Allison, Roger, & Martin, 2002).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편집과 우울이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는 증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편집이 기저에 있는 우울의 한 표현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Bentall 등은 편집과 우울은 불쾌하고 침체된 기분, 낮은 자존감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며, 다만 방어적 경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았다(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andido & Romney, 1990). 또한, MacKinnon과 Michels(1971)는 편집증의 기저에 우울한 성향이 있고 편집상태와 우울상태는 우울한 사람들이 변증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반복적인 정서경험이라고 설명하였으며,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증이 단극성 우울 장애나 조증,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우울의 여러 표현형 가운데 하나이며 우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기제라고 하였다.

두 개념 혹은 상태를 어떤 관계로 규정하건 편집과 우울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분노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 오랫동안 분노는 편집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론 역시 이

러한 관점에서 분노와 적대감을 억제 혹은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을 형성하는 것이 편집증이라고 보았다(Freud, 1915/1957). 편집증과 분노와의 관련성은 편집증상을 보이는 주요 장애의 임상적 특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편집형 성격장애는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으며 자신의 성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즉시 화를 내거나 반격하는 등의 분노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분열증 편집형과 망상장애 피해형 역시 분노 및 난폭한 행동을 표출하는 등의 부수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APA, 1994). 또한 편집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분노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과 자극에 따라 폭발적인 분노표출을 보인다(Dowson & Grounds, 1995).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우울 역시 분노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즉 자신을 버린, 상실한 애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적대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결과가 우울증이라고 보았다(Freud, 1917/1985). 또한 최근에는 우울장애에 우울한 기분 및 불안 외에도 다른 정신병리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병리에는 분노, 성마름, 공격성, 적대감이 포함된다(Pasquini, Picardi, Biondi, Gaetano, & Morosini, 2004).

우울과 분노의 관련성은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Riley 등의 연구(Riley, Treiber, & Woods, 1989)에 따르면 임상 집단에서 우울과 관련된 파괴적인 분노 경향인 특성 분노와 억압된 분노가 나타나며, 이러한 억압된 분노는 정상 집단 및 외상후 스트레스 집단에 비해 우울환자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 또한 우울증 집단의 약 30~40% 가량은 분노발작을 보이며(Fava, 1998; Fava &

Rosenbaum, 1998), 만성적인 우울감을 경험하는 기분부전장애 집단도 약 28%가 분노발작을 경험한다(Fava, Nierenberg, Quitkin, Zisook, Pearlstein, Stone, & Rosenbaum, 1997). 최근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 중 82%가 분노를 억압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56%는 우울해지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Paul, Jean, & Chis, 2004).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집과 우울 모두 분노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만 분노경험에 대한 대처 혹은 표현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집과 우울의 밀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분노의 측면에서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분노경험과 편집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각각의 증상과 분노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 및 선행 연구들에서의 가설을 검증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의 측면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사고를 살펴보는 것은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된 분노경험 중 인지적 요인이 분노의 유발과정 및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 반드시 수반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Lazarus, 1991), 두 집단의 분노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분노사고를 통해 분노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평가나 해석, 앞으로의 대처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집단의 상이한 인지적 분노경험의 내용과 분노경험 시 예측 가능한 대처행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의 치료적 접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와 편집 및 우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 더불어 분노경험에서 두 집단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노경험을 인지적 분노경험인 분노사고와 일상생활 속의 분노경험인 분노생활사건, 일반적인 분노수준을 나타내는 특성분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노변인들이 편집과 우울 두 증상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편집과 우울 점수에 따라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집과 우울은 분노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분노변인들은 편집과 우울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셋째,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은 분노사고의 내용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청주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재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반응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56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이 273명(48.1%), 여성이 295명(51.9%)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33세(SD=2.27)였다.

### 측정 도구

### 편집성 척도

이 척도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Fenigstein과 Venable(1992)의 편집성 척도 제작방식에 따라 MMPI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이 척도는 Zung(1965)이 개발한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나는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 등 우울증의 정서적,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증상의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0개 문항 중 10개는 반대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우울증이 심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며, 점수 범위는 20~80점까지이다.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합치도는 .79~.80이었다.

###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

이 척도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척도로, 분노유발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해석이나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믿었던 친구가 날 비난하고 내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나는 배신감

을 느낀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서부터 “거의 정확히 일치함”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11문항)’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9문항)’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보고한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과 .80이었다.

###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이 척도는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차적인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행동, 심리상태를 반영한 일련의 생각들을 측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싶다”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 화가 났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타인비난/보복(19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통제/건설적 대처(8문항)로 명명된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5)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6, .78, .75였다.

###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척도

이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분노 및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상태 분노(10문항)와 특성 분노(10문항)라는 분노경험의 유형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특성 분노 척도만을 포함하였다. 전 경구 등(1997)이 보고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이며,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 분노생활사건척도

이 척도는 김교현(1995)이 대학생들이 최근 1달 동안 경험한 사건들 중, 자신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라고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는 주위 사람의 파렴치한 행동이나 사회의 부조리, 동료들의 이기적인 행동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분노유발 사건들을 측정하며, 전반적 분노사건, 교수관련 사건, 가까운 사람과의 사건, 순위 사람과의 사건, 일시적 사건, 장기적 사건과 같은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개 문항에 대해 지난 1달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3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0에서 44점에 이른다. 김교현(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 결 과

### 편집 및 우울과 각 분노와의 관계

편집과 우울, 그리고 각 분노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단순상관 분석 결과 편집과 우울은 모든 분노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집 혹은 우울이 강할수록 전반적으로 자주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편집과 우울 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각 성향의 독특한 분노특징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r(568) = .55, p < .001$ , 부분상관 분석을 통해 편집과 우울 고유의 분노특징을 살펴보았다.

편집에서 우울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상관 분석 결과 단순상관에 비해 상관계수가 감소하긴 하였으나 모든 분노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다. 분노사고의 하위 요인 가운데서는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보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r(568) = .36, p < .001$ . 특성 분노,  $r(568) = .37, p < .001$ , 분노생활사건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568) = .32, p < .001$ . 이 결과는 편집 경향성이 강할수록 일반적인 분노수준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며 분노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이 부당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타인을 비난·보복하는 내용의 인지적 분노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에서 편집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분노변인들과 우울 간의 상관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변인들과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 가운데 이차적 분노사고의 무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r(568) = .33, p < .001$ , 다음으로 분노생활사건,  $r(568) = .11, p < .01$ , 일차적 분노사고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고,  $r(568) = .09, p < .05$ , 특성분노와는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568) = .08, ns$ . 이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분노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으며 분노상황에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이어서 그러

표 1. 편집 및 우울과 분노변인들의 단순상관 관계 및 부분상관 관계

| 변인       | 1      | PA pr  | 2      | SDS pr | 3      | 4      | 5      | 6      | 7      | 8      | 9    |
|----------|--------|--------|--------|--------|--------|--------|--------|--------|--------|--------|------|
| 1. PA    | 1.00   |        |        |        |        |        |        |        |        |        |      |
| 2. SDS   | .55*** | —      | 1.00   | 1.00   |        |        |        |        |        |        |      |
| 3. ALE   | .43*** | .32*** | .32*** | .11**  | 1.00   |        |        |        |        |        |      |
| 4. TA    | .46*** | .37*** | .31*** | .08    | .24*** | 1.00   |        |        |        |        |      |
| 5. PAT-1 | .32*** | .26*** | .19*** | .02    | .10*   | .25**  | 1.00   |        |        |        |      |
| 6. PAT-2 | .32*** | .23*** | .25*** | .09*   | .10*   | .31*** | .67*** | 1.00   |        |        |      |
| 7. SAT-1 | .42*** | .36*** | .24*** | .02    | .23*** | .49*** | .41*** | .43*** | 1.00   |        |      |
| 8. SAT-2 | .48*** | .28*** | .51*** | .33*** | .13**  | .21*** | .27*** | .32*** | .40*** | 1.00   |      |
| 9. SAT-3 | .25*** | .21*** | .15*** | .01    | .18*** | .11*** | .24*** | .26*** | .31*** | .52*** | 1.00 |

\*  $p < .05$ , \*\*  $p < .01$ , \*\*\*  $p < .001$

PA = 편집성 척도 PA pr = 우울점수를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

SDS = Zung 우울척도 SDS pr = 편집점수를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

ALE = 분노생활사건

PAT-1 = 일차적 분노사고 -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PAT-2 = 일차적 분노사고 -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SAT-1 = 이차적 분노사고 - 타인비난/보복

SAT-2 = 이차적 분노사고 - 무력감 SAT-3 = 이차적 분노사고 -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 편집 및 우울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

편집과 우울에 대한 분노사고의 하위요인들과 특성 분노, 분노생활사건의 설명력을 살펴 보기 위해 입력 방식으로 모든 예언변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언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대체로 높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각의 변인들은 센터링을 한 후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편집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40%,  $F(7, 560)=54.22$ ,  $p < .001$ , 우울에 대한 분노변

인들의 총 설명량은 33%,  $F(7, 560)=39.76$ ,  $p < .001$ 이었다.

각각의 성향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집의 경우 4가지 변인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그 가운데 무력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beta=.30$ ,  $p < .001$ , 이어서 분노생활사건,  $\beta=.26$ ,  $p < .001$ , 특성분노,  $\beta=.23$ ,  $p < .001$ ,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beta=.11$ ,  $p < .05$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우울 역시 4개 변인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무력감,  $\beta=.30$ ,  $p < .001$ , 분노생활사건,  $\beta=.20$ ,  $p < .001$ ,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beta=-.17$ ,  $p < .001$ , 특성분노,  $\beta=.13$ ,  $p < .01$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따라서

표 2. 편집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

|                          | B    | SE B | Beta   | R <sup>2</sup> | F        |
|--------------------------|------|------|--------|----------------|----------|
| 분노생활사건                   | .45  | .06  | .26*** |                |          |
| 특성분노                     | .43  | .08  | .23*** |                |          |
|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 .14  | .06  | .11*** |                |          |
|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 -.03 | .08  | -.02   | .40            | 54.22*** |
| 타인비난/보복                  | .04  | .03  | .07    |                |          |
| 무력감                      | .57  | .08  | .30*** |                |          |
|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 -.07 | .07  | -.04   |                |          |

\*\*  $p < .01$ , \*\*\*  $p < .001$ 

표 3. 우울에 대한 분노변인들의 설명력

|                          | B    | SE B | Beta    | R <sup>2</sup> | F        |
|--------------------------|------|------|---------|----------------|----------|
| 분노생활사건                   | .23  | .05  | .20***  |                |          |
| 특성분노                     | .17  | .05  | .13**   |                |          |
|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 .01  | .04  | .01**   |                |          |
|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 .05  | .06  | .05     | .33            | 39.76*** |
| 타인비난/보복                  | -.04 | .02  | -.52    |                |          |
| 무력감                      | .67  | .06  | .30***  |                |          |
|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 -.19 | .05  | -.17*** |                |          |

\*\*  $p < .01$ , \*\*\*  $p < .001$ 

편집과 우울 모두 분노생활사건, 특성분노, 무력감이 각각의 성향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예언변인이며, 편집은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반면 우울의 경우 이 변인은 유의한 설명력이 없고 대신 낮은 분노통제/건설적 대처가 설명력이 유의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편집집단과 우울집단 간 분노 양상 비교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분노양상을 비교해

보기 위해 편집점수 및 우울점수를 사용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점수분포에서 약 33.3% 단위로 상중하 집단을 나눈 다음, 편집점수분포에서는 상위 33.3%에 속하고 우울점수분포에서는 하위 33.3%에 속하는 사람들은 편집집단으로, 우울점수분포에서는 상위 33.3%에 속하고 편집점수분포에서는 하위 33.3%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분노사고

독립집단  $t$ -검증을 통해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인지적 분노경험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타인비난/보복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t(44)=2.25$ ,  $p<.05$ ,  $t(44)=3.84$ ,  $p<.001$ . 두 가지 분노사고에서 모두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특히 타인비난/보복에서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부분상관분석 결과에서 편집은 이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우울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분노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부당하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차적으로 타인에 대해 비난, 보복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성 분노와 분노생활사건

특성 분노 수준에서 편집집단과 우울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특성 분노 수

준을 보였다,  $t(44)=2.50$ ,  $p<.05$ . 이것은 앞서 부분상관분석 결과 우울은 특성분노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편집은 특성분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보인 것과 일치하며 따라서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보다 다양한 시간과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집단은 우울집단에 비해 분노생활사건의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44)=2.09$ ,  $p<.05$ , 두 집단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노생활사건의 유형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노사건이었다,  $t(44)=3.03$ ,  $p<.01$ . 따라서 평소 편집의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분노사건을 경험하며, 특히 친구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노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편집 및 우울과 분노경험 간의 관계를 인지적 분노경험 및 분노유형, 분

표 4.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인지적 분노경험 차이

| 변인                       | 편집(N=17)     | 우울(N=29)     | df | t       |
|--------------------------|--------------|--------------|----|---------|
| <u>일차적 분노사고</u>          |              |              |    |         |
|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 34.59( 7.27) | 29.00( 8.57) | 44 | 2.25*   |
|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 29.12( 6.67) | 25.83( 7.20) | 44 | 1.54    |
| <u>이차적 분노사고</u>          |              |              |    |         |
| 타인비난/보복                  | 55.12(14.42) | 39.52(12.65) | 44 | 3.84*** |
| 무력감                      | 15.41( 3.62) | 14.38( 4.87) | 44 | -0.19   |
|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 25.06( 4.97) | 21.90( 6.44) | 44 | 1.60    |

\*\*\*  $p<.001$

표 5.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의 특성 분노 및 분노생활사건

| 변인       | 편집(N=17)     | 우울(N=29)     | df | t      |
|----------|--------------|--------------|----|--------|
| 특성 분노    | 14.24( 4.44) | 10.21( 5.70) | 44 | 2.50*  |
| 분노생활사건   | 7.94( 5.08)  | 4.79( 4.84)  | 44 | 2.09*  |
| 전반적 분노사건 | 2.71( 1.96)  | 1.79( 2.27)  | 44 | 1.38   |
| 교수관련 사건  | .47( .87)    | .34( .86)    | 44 | .48    |
| 가까운 사람   | 2.12( 1.62)  | .86( 1.19)   | 44 | 3.03** |
| 손위 사람    | 1.47( 1.55)  | .72( 1.07)   | 44 | 1.94   |
| 일시적 사건   | .94( .75)    | .76( 1.06)   | 44 | .63    |
| 장기적 사건   | .24( .56)    | .31( .54)    | 44 | -.44   |

\*  $p < .05$ , \*\*  $p < .01$ , \*\*\*  $p < .001$ 

노생활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더불어 편집집단과 우울집단이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분노경험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 우울,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특성 분노, 분노생활사건을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순상관분석 결과 편집과 우울은 모든 분노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각각의 영향력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 결과에서는 편집과 우울이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 ‘분노생활사건’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고 있었으나 편집은 ‘특성 분노’, ‘타인비난/보복’과, 우울은 ‘무력감’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무력감’, ‘분노생활사건’, ‘특성 분노’는 편집과 우울을 설명하는 공통된 요인이었고, 부가적으로 편집에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진 반면, 우울의 경우 낮은 ‘분노통제/건설적 대처’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상대적인 분노경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분노경험에서는 편집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타인비난/보복과 관련된 분노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편집집단은 우울집단에 비해 특성 분노 수준이 더 높았고, 분노생활사건의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편집이 분노변인과 대체로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편집증과 분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통적인 이론적 관점 및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훈진, 2000; Dowson & Grounds, 1995; Freud, 1915/1957). 또한 편집증적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분노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의 방어적이고 투사적인 분노사고를 한다는 점은 편집증의 적대적인 추론 방식 및 방어적인 귀인양식이 분노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

한다(이훈진, 1999, 2001; Kinderman & Bentall, 1997). 더불어 편집증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상황에서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언어적 및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분노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분노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 역시 우울과 분노간의 관련성을 상징한 여러 주장들과 일치한다(Freud, 1917/1985; Pasquini et al., 2004). 또한 우울이 분노사고의 하위 요인 가운데 무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우울한 사람들의 ‘무력감’이라는 임상적 특징이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분노상황에서 분노감정의 통제나 분노 상황을 객관적·문제 해결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무력한 내용의 사고를 하기 쉬우며,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참거나 무력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분노유형이나 분노표현양식에만 제한된 분노경험에 관한 연구영역을 인지적 차원과 실제 분노사건의 경험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우울 및 편집증적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분노경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연구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역기능적인 분노사고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의 분노경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만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

상으로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분노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구성된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이 각각의 증상이 더 뚜렷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순수한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수의 표본으로부터 순수한 편집 및 우울 집단을 구성하여 두 집단 간의 분노경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양식을 살펴보지 않아 분노상황에 대한 대처양상을 반영하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양식의 측정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단일 집단으로 하여 분노경험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우울의 경우 분노발작이 있는 우울증의 하위유형은 일반 우울증과는 다른 독특한 임상양상을 보이며(Fava & Rosenbaum, 1998) 유형 및 장애의 단계에 따라 도출된 상대적 분노경험도 달라질 수 있다(Sinikka, 2007). 따라서 앞으로 우울집단을 분노발작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과 같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징적인 분노경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김교현 (1995). 대학생과 교사용 분노 생활사건 척도. *학생생활연구*, 22, 28-35.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187-206.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15.
- 이훈진 (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427-438.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2001). 편집성향 집단의 분노표현방식과 귀인 및 추론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443-452.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및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 건강, 2, 60-7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York.
- Dowson, J. H., & Grounds, A. T. (1995). *Personality disorders: Recognition and clinical manage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va, M. (1998). Depression with anger attack.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 18-22.
- Fava, M., Alpert, J. E., Nierenberg, A. A., Quitkin, F. V., Zisook, S., Pearlstein, T., Stone, A., & Rosenbaum, J. F. (1997). A preliminary study on the efficacy of sertraline and imipramine on anger attacks in depression. *Psychopharmacology Bulletin*, 33, 101-103.
- Fava, M., & Rosenbaum, J. F. (1998). Anger attacks in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suppl. 15), 21-24.
- Fenigstein, A., & Ve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Freud, S. (1915/1957).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disease*.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17/198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ordan, G. W., Peter, R. J., Allison, L. M., Roger, T. M., & Martin A. K. (2002). A polymorphism in the dopamine  $\beta$ -hydroxylase gene is associated with paranoid ideation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51, 365-369.

- Ke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self-serving bia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Pasquini, M., Picardi, A., Biondi, M., Gaetano, P., & Morosini, P. (2004). Relevance of Anger and Irritability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opathology*, 37, 155-160.
- Paul, G., Jean, G., & Chris, I. (2004). Life events,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9, 149-160.
- Riley, W. T., Treiber, F. A., & Woods, M. G. (1989). Anger and hostility in depres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668-674.
- Sinikka, L. (2007). Anger and depression-Theoretic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1, 246-251.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Winkler, D., Pjrek, E., & Kasper, S. (2005). Anger attack in depression - Evidence for a male depressive syndrom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 303-307.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원고접수일 : 2007. 11. 13.  
게재결정일 : 2008. 1. 10.

## Anger Experience and Anger Thought in Paranoid and Depressed Students

Hyeon-Mi Jeong

Soon-Taek Hwang

Suk-H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anger thought, trait anger, anger life event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he Paranoia Scale, the Zung Depression Inventory, the State-Trait Anger Scale, the Primary Anger-Thought Scale, the Secondary Anger-Thought Scale, and the Anger Life Event Scale were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N=568).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paranoia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isregard and disappointment in intimate relationship situations, helplessness, and anger life event. However, while paranoia had a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derogation of others/vengeance, depression had a high correlation with helplessness. A comparison of the anger experience in paranoia with that in depression reveal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anger variables in paranoia was greater than in depression, and helplessness, trait anger, and anger life event were common predict variables. Sensitivity to the wrongful and selfish behaviour of others was determined to be an additional predictive variable of paranoia, and little anger control/constructive coping was determined to be an is additional predictive variable of depressio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nger experience between the paranoid and the depressed groups. The paranoid group showed greater sensitivity to the wrongful and selfish behaviour of others, derogation of others/vengeance, trait-anger, and frequency of anger life events in comparison to the depressed group.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anoia, depression, anger thought, trait anger*